

[바둑]

‘관록’의 이세돌이나 ‘무서운 신인’ 한상훈이나

LG배 4년만에 한국 품으로

이세돌·한상훈 동반 결승행...한국팀 7회 우승 예약



<이세돌 9단>

LG배 세계기왕전 패권을 4년 만에 한국의 품으로 돌아온다. 지난 14일 막을 내린 제12회 LG배 세계기왕전 4강전에서 이세돌 9단과 한상훈 초단이 결승에 진출함으로써 한국은 지난 2004년 이창호 9단이 우승한 이래 4년 만에 LG배를 탈환하게 됐다.

특히 이번 대회 결승에 오른 이세돌 9단은 2003년에 이어 이 대회 두번째 정상에 도전하게 된다. 이세돌 9단은 제5, 7회 대회에 이어 세번째 결승전에 진출했으며, 제7회 대회에 이어 두번째 우승을 노리게 됐다.

특히 이번 대회 결승에 오른 이세돌 9단은 2003년에 이어 이 대회 두번째 정상에 도전하게 된다. 이세돌 9단은 제5, 7회 대회에 이어 세번째 결승전에 진출했으며, 제7회 대회에 이어 두번째 우승을 노리게 됐다.

앞세운 한상훈 초단과 격돌한다. 국제대회 경험과 관록, 최근 컨디션으로 볼 때 이 9단의 승리가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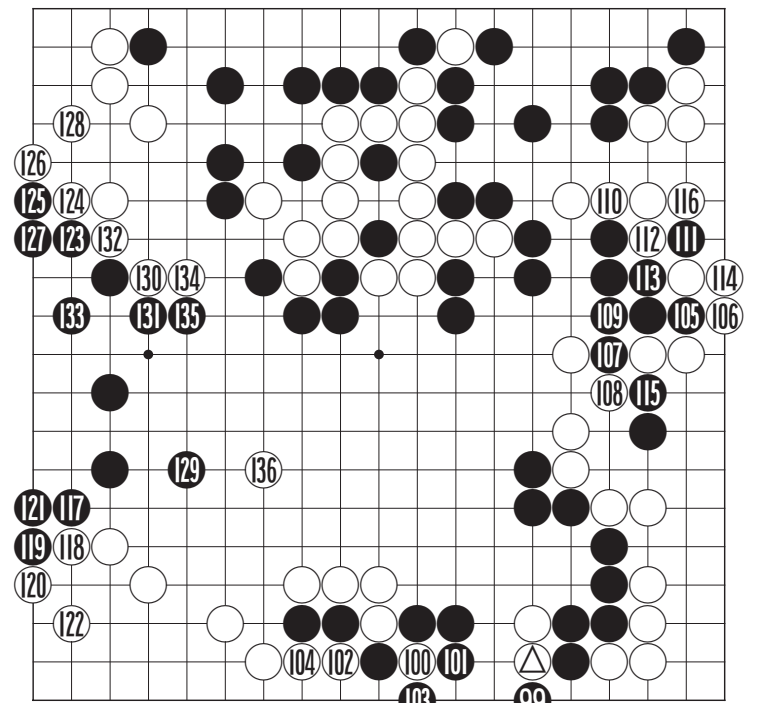


<한상훈 초단>

신인감자로서 이미지를 굳힌다는 복안이어서 만만찮은 승부가 예고되고 있다. 결승 3번기는 내년 2월에 열린다.

백 승리 확정 6보(99~136)

일반부 결승전 白 신희원 5단 黑 오재관 5단



백 스가 100으로 끊기위한 예비수단으로 승리를 더욱 굳건히 한 마무리 편치가 되었다. 이때 흑은 101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 104까지 하변의 흑 두점이 잡혀 갈수록 백의 승리는 굳어져 간다.

그러면 13까지 선수로 깨끗하게 틀어막을 수는 있었다. 그러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승부가 바뀌는 일은 없었다. 이미 대세는 결정된 것이다.

백 스가 100으로 끊기위한 예비수단으로 승리를 더욱 굳건히 한 마무리 편치가 되었다. 이때 흑은 101로 받을 수밖에 없는데 104까지 하변의 흑 두점이 잡혀 갈수록 백의 승리는 굳어져 간다.

“미래의 국수는 바로 나”

강진서 ‘김인 국수배 바둑대회’ 개막

상패와 트로피가 수여된다.

제1회 ‘김인 국수배’ 전국어린이 바둑대회 17~18일 강진에서 열린다. 강진군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는 전국대회 성적우수자 64명을 비롯해 전국의 바둑 꿈나무 6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이를 동안 진행된다.

부대행사로 어린이 바둑팬들과 애가들을 위한 초보자 바둑강의와 오교철 9단, 윤현석 9단 등 프로기사들이 참가하는 지도 다면기도 진행된다.

강진군은 한국 바둑계의 산증인인 김인 9단의 업적을 기리고 바둑의 저변확대와 지역 바둑 유망주를 발굴하기 위해 이 대회를 창설했다.

강진군 강신장 스포츠기획팀장은 “김인 국수배 전국어린이 바둑대회가 전국 최고의 어린이 바둑대회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대회 참가자들은 각각 최강부와 유단자부, 각 학년부, 유치부로 나눠 경합하며 각 부문 우승, 준우승, 공동 3위 입상자에게는

상패와 트로피가 수여된다. 부대행사로 어린이 바둑팬들과 애가들을 위한 초보자 바둑강의와 오교철 9단, 윤현석 9단 등 프로기사들이 참가하는 지도 다면기도 진행된다.



공무원들의 바둑 삼매경 지난 14일 강원도 태백시 청소년 수련관에서 열린 ‘제6회 강원도 시·군 공무원 친선 바둑대회’에서 각 시도 대표 선수들이 대국하고 있다. 이 대회에는 전국 16개 시·군에서 출전한 28개팀이 참가했다.

“최종국 가자” 허영호 6단, SK가스배 결승 2국서 윤준상 꺾어

허영호 6단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허 6단은 지난 14일 스카이가스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12회 SK가스배 신에프로 10절전 결승 2국에서 윤준상 6단을 184수 만에 불계로 꺾었다.

허영호 6단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허 6단은 지난 14일 스카이가스배 스튜디오에서 열린 제12회 SK가스배 신에프로 10절전 결승 2국에서 윤준상 6단을 184수 만에 불계로 꺾었다.

경기 안산팀, 전국 아마바둑 최고봉 등극

남 단체 결승, 인천 남동구팀 꺾어

(아마 5단)씨로 구성된 안산팀은 팀원들의 고

경기 안산팀이 제2회 전주시장배 전국아마바둑단체전 남성 단체부 패권을 차지했다. 안산팀은 최근 전주실내배 트민턴장에서 열린 이 대회 남성 단체부 결승전에서 인천 남동구팀을 2승1패로 꺾고 정상에 올랐다.

(아마 5단)씨로 구성된 안산팀은 팀원들의 고른 활약으로 단체전 1위에 올랐다. 송이슬 아마 6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속팀이 우승하는 기쁨을 맛봤다.

대인동상업무동산 (Tel: 223-1140, 220-1101) 좋은 자리에 상가 건물들 싸게 시실분

무등공인중개사 (Tel: 383-5221, 011-809-5221) ● 건물 ● 토지, 상가(상부지구)

금보부동산컨설팅 (Tel: 261-8949, 011-602-2233) 토지매매 건물매매

A+ 에이플러스공인중개사 (Tel: 062)973-9174, 016-757-8800) 침단지구 상업용지 = 205평 500평 =

한일지도판매(주) (Tel: 043-528-1409, 010-2466-1409) 2007 최신 합본(중주주출판정당합) 지번도 책 판매중

부자되세요 공인중개사 사무소 (Tel: 655-8249, 011-9618-9691) 1. 광제빌딩상가 임대(신축) 2. 서구 삼촌동 원룸 매매